



#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20년 3월 15일 | 총권 51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다락골길 164-24 | 전화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 동네에서, 마을에서 놀자

“요즘 뭐하고 지내?”하는 안부 인사를 들을 때면 “나?” “동네에서 놀고 있어.”라는 대답을 종종 하게 된다. 그렇다. 동창 모임이나 다른 몇 개의 공식모임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네에 있다. 만나는 사람도, 활동 공간도, 생활공간도 모두 동네에 있는지라 이제 지하철 타고 나가는 것이 낯설다.

책이 읽고 싶거나 필요한 책이 있으면 동네책방에서 해결한다. 사야 될 책을 주문을 하고, 기다리면 주문한 책이 온다. 책을 찾으러 간 김에 ‘차 한 잔에 책 한 권의 여유’를 부려본다. 이곳 동네책방은 차 마시며 책 읽기 아주 좋은 분위기이다. 책 읽는 모임 장소가 필요하다면 마을마다 있는 마을활력소에 예약을 하면 장소는 물론 공유주방도 활용할 수 있다. 간단한 식사거리와 커피해결이 가능하다. 이 마을활력소에는 집에는 없는 커다란 공구도 빌릴 수 있다. 나눔도 실천할 수 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놓아두면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다 쓴다.

물론 마을카페도 있다. 우리 동네엔 구립시설이지만 도서관을 겸해 작은 도서관과 카페가 함께 있다. 커피값도 저렴하다. 어린이집도 옆에 붙어 있어 어린이집을 보내고 난 엄마들이 도란도란 모여 담소를 나눈다. 옆 동네 마을카페는 무인카페로 운영된다. 단돈 1000원으로 어떤 차든 마실 수 있고, 간단한 모임하기에도 좋다. 작은 도서관들에서는 아기자기한 소모임이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활발하다. 사람이 있고 책이 있고 이야기가 솔솔 나온다. 얼마 전 생태공원 안에도 작은 도서관이 생겼다. 숲에서 책을 읽는 맛이 쏠쏠하다. 사무실에서 단체로 식사를 하려고 하면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이 될 때 우리는 동네부엌으로 도시락을 주문한다. 일정 금액을 넘으면 배달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네부엌에서는 반찬도 종종 판매한다. 평상시에는, 저녁을 챙겨먹기 어

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식당도 운영되고 있다. 동네 소식은 마을신문과 동네라디오를 통하여 된다. 마을 활동이나 마을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마을공동체 기록관으로 가면 된다. 동네의 기록을 아카이빙하고 있는 중이다. 마을여행이 필요하다면 마을여행 전문가들이 곳곳에 있다. 마을해설사 양성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을의 역사와 문화, 마을이야기를 담은 마을 책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초등 3학년 사회과 교과서와 연계된 마을교과서가 발행되어 아이들이 사회수업 시간에 보게 된다. 전입자들을 위한 마을안내서도 있다. 곧 마을여행 책도 발간 예정이다. 사람이 모이니 하고 싶은 일도 생긴다.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할까.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다. 모임 형성기 씨앗모임에서부터 성장모임까지도 지원한다. 우리 동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아직 보안등이 없다 싶으면 주민자치회 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동네 문제를 고민하고 의제를 만들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대도시에서 마을이, 동네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가능하다. 동네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다. 요즘 코로나 19로 더 어려워진 이웃들을 위해 마을사람들이 모여 마스크를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 보내고, 아이들이 자주 가는 곳에는 스스로 나서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썬워준다. 동네에서, 마을이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내가 즐겨 찾고, 삶을 함께하는 공간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동네 소비자들이 생기면 지역 안에서 사람, 자원, 자본의 선순환이 절로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바야흐로 동네의 시대, 마을의 시대이다.

###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이런 수업 어때요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책모임 ‘엄마들의 책읽기’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김애연, 김봉화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시오.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 특성화고 한 학기 한 권 읽기

## 수원농생명과학고 도서관 책으로 진로 독서 수업하기

- 김지은(전 수원농생명과학고/현 대평고등학교 교사)

### 진로 독서 어떻게 시작할까요.

서평쓰기나 책 대화하기를 위해 4명의 학생들이 1권의 책을 정해 스스로 구입하여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읽기 속도가 느린 학생은 개인적으로 미리 읽어올 수 있고, 책에 밑줄을 치거나 메모하는 것도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책을 읽고 다른 생각을 나누는 소중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책을 준비시키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나 진로 독서처럼 학생 개인마다 원하는 분야의 책이 모두 다를 때, 차선책으로 교사가 준비한 진로 책장에서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은 본인의 책이 아니다 보니 마음대로 필기나 밑줄을 칠 수 없고, 매시간 읽을 수 있다는 보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책읽기의 흐름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초반에 읽을 책을 정해서 그 학생에게 우선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교사가 선별한 책 안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책을 고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고 준비 과정에서 수고로움이 줄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본인이 고르진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보고 있거나 교사가 첫 시간에 소개하는 내용을 통해 비슷한 분야의 다른 책들에 대한 관심이 1년 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진로 도서 책장을 끌고 들어가다

현재 2학년 교실은 본관 3층에 있고, 도서실은 약 50m 이상 정도 떨어진 식당 건물 3층에 있어 학생들이 10분 이내에 이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장을 끌고 교실에 가서 미니 도서실처럼 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로독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 책장은 2011년도에 아침독서운동에서 받은 책장에 큰 바퀴를 네 개 달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2\*3의 6칸짜리 책장이기 때문에 한 칸에 20여권씩 약 120권 정도가 들어갑니다. 진로 책장에 들어갈 만한 책은 학기 초 학생들이 희망진로 및 읽고 싶은 도서를 조사하여 그에 해당하는 책들을 도서실에서 한 학기 혹은 1년 장기 대출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새로운 책들이 나오고 학생들의 선호 분야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2월 혹은 3월 초에 도서 구입 신청 시 추가할 진로 도서 목록을 준비해 꼭 신청합니다. 도서실에서 책 구입하여 바코드 작업까지 걸리는 한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학교 도서실에 있는 책 중에서 대출하여 사용합니다.

식품과, 바이오시스템과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식품, 요리, 제빵, 음료에 관한 책들이나 기계 혹은 농업에 관한 책들을 주로 준비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고민중)은

진로 전반에 관련된 책들 모두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진로를 찾는 방법에 관한 책도 좋고, 다양한 직업에 관한 책이나, 한 분야의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도 좋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게임 캐릭터, 네일아트, 체육 교사, 간호사, 호텔리어, 공무원, 기타 등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 관련된 책을 한두 권씩 비치하면 학생들이 그 안에서 책을 골라 읽기도 합니다. 기계를 전공하는 남학생들(중3 내신 125점대 25명)을 위해서 축구선수 관련된 책들도 5권 이상 준비했습니다.

진로 도서 책장을 갖고 들어가는 첫 시간에는 책을 한 권씩 모두 보여주면서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합니다. (총 20분 이내, 한 15분 이상 되면 학생들이 멍~해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작가는 누구인지, 어떤 학생이 읽으면 좋은지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훌훌 설명하면서 책 안쪽을 휘휘릭 넘기면서 보여줍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읽고 싶은 책 제목을 공책에 써두라고 하고, 소개 후 한 분단씩 나와서 골라가도록 합니다. 한번에 나오면 복잡하니까요. 먼저 나오는 순서는 매주 한 번씩 돌아가면 좋습니다. 물론 이때 개인적으로 책을 준비한 친구들은 계속 자기 책을 읽습니다.

### 일주일에 한 시간 진로독서하기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그 주 마지막 시간은 진로독서 시간으로 정해 책을 읽습니다. 쉬는 시간에 국어 반장이 진로 책장을 미리 가져가서 학생들이 책 읽기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준비한 진로 도서를 읽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로 책장에 있는 책을 읽는 학생들이 많아집니다. 학생들이 모두 책을 읽을 동안 잔잔한 피아노곡을 틀어놓으면 정말 북카페 느낌이 납니다.(이어폰 허용) 물론 30분이 지나가면서 조는 학생들이 생기기 때문에 교사는 책을 읽되 신경은 학생들에게 두면서 옆드리는 학생들을 깨워야 합니다. 학기 초 조는 학생을 깨우면 5분간 서 있기로 약속했고, 줄면 일일도우미가 체크리스트에 기록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쓰러지진 않습니다.

### 책날적이

35분쯤 칠판에 그날 기록한 주제를 적어둡니다. 주로 인상 깊은 구절과 그 이유를 적거나 서평쓰기 활동의 초안에 해당하는 질문을 적었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 미리 적으면 책날적이지만 쓰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 책날적이 주제를 수업 중간에 제시했는데, 이걸 교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무엇을 쓸지 뒤늦게 고민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수업 시작 시 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 모둠 책대화

40분 정도 책을 읽은 후, 4명 모둠으로 앉아 읽은 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 인상 깊은 구절을 낭독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다른 책을 읽었지만, 자신이 읽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친구들의 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모둠 내에서 이야기나누는 순서를 정해 주거나 사회자를 지정해줘야 짧은 시간 내에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하게 됩니다.

책날적이는 끝나기 5~10분 전에 독서도장을 찍기 시작합니다. 한 명씩 쓴 글을 읽으면서 칭찬해주거나 좋은 문장에는 밑줄을 치면서 짧게나마 학생들과 1대1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독서도장은 독서시간에 책을 잘 읽고(졸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책날적이 쓴 것을 바탕으로 찍어주면 되는데, 하루에 하나만 찍으면 개수가 너무 적어서 급간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국어수업 내 읽기와 관련된 활동(본문 밑줄 치며 읽기나 소설 전문 읽기 등) 때에도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 진로 서평 쓰기

한 학기 한 권 읽기인데, 실제로 주1회 독서시간을 운영하다 보면 1학기에 한 권을 다 읽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 2차 지필평가 이후 방학식 날까지 3~6차시 정도 집중 읽기 후 다 못 읽은 것은 방학 과제로 냈습니다. 개학 직후 일주일 간 서평쓰기를 진행합니다.

서평쓰기는 송승훈 선생님의 자료를 기본으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신 학습지를 그대로 따라했고 다른 점은 최종 워드 파일에 서평과 관련된 사진을 3~4장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서평쓰기는 독서논술 수행평가 20점 기준으로 매시간 충실하게 써내면 점수를 부여하는 정량평가로 15점을 나눠서 부여하고, 최종 서평으로 정성평가 5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때도 상호평가 이후 최종본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면 친구들의 글을 읽

으면서 자신의 글을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교사는 초안(질문-답쓰기) 과정에서 학생들의 글을 읽고 짧게 조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추상적인 단어(좋다, 감명깊었다, 감동적이었다, 공감이 되었다)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부분을 짚어주고, 중학생 동생에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서술하라고 조언합니다.

1, 2, 3차시는 교실에서 초안 질문 항목을 3개씩 성실하게 작성하면 만점을 부여했고, 그 시간 내에 못 하는 학생은 오전 수업 때는 종례시간까지, 오후 수업 때는 다음날 조회시간까지 써오면 인정해주었습니다. 교실 텔레비전 화면에 엑셀을 아래와 같이 띄워놓고 나오는 대로 검사하면서 점수를 입력했습니다.

초안을 완성하면 구성과 소재, 큰 제목을 고민해오도록 하고, 학교 컴퓨터실을 1시간을 빌려서 홈페이지에 올려져있는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도록 합니다. 개인 usb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워드 완성본은 상황에 맞추어서 다음날 아침 9:20까지 이메일이나 usb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말을 지나 월요일 아침까지도 여유있게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한 내 제출하면 1점, 늦으면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최종본' 항목은 상호평가 후 다시 고쳐서 제출하는지도 점수화했습니다.

**매체를 활용하여 책 소개하기-책 읽어주는 여자/남자**

1학기는 시와 관련된 활동으로, 2학기는 진로 독서와 관련된 활동으로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2학기 초 서평쓰기, 2학기 1차 지필평가 직후에는 책 소개하기 발표를 합니다. 교과서의 매체 관련 단원과 연계하여 한 가지 이상의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발표 후 친구들이 서로 빌려달라고 해야 최고의 발표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3분, 책에 대한 소개, 낭독 장면 설명, 인상 깊은 한 구절 낭독, 자신의 이야기 등 서평쓰기에서 했던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체에 관해서는 PPT, UCC, 손그림, 사진 등 매체 자료 활용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북트레일러(책 동영상 광고)는 다양한 예시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여줍니다. 북트레일러로 발표하는 학생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 성실하지만 수줍음이 많은 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PPT를 사용할 때는 문자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나 도표, 사진, 영상 등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고, 어렵게 PPT를 만들지 않고 사진 파일만을 순서대로 보여주거나 손글씨로 색지나 전지에 쓰거나 그려서 발표하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발표할 때는 꼭 책을 보여주면서 해야 하고요.

발표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추가 1



분으로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시간 제한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았더니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질문도 많아지면서 한 시간 동안 몇 명 발표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겨 시간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 여유가 되면 더 시간을 줘도 좋습니다. 질문은 먼저 발표한 앞번호 학생이 필수로 1가지 질문하도록 하고, 나머지 학생들 중 추가로 질문하면 우물 정자로 체크했다가 수행평가 점수 채점 시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상호평가는 국어 공책에 발표자 이름, 책 제목, 별점, 그 이유 등을 쓰도록 해서 과정 평가에 반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반 친구들의 추천 목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친구가 발표할 때 짝꿍은 친구 휴대폰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해주도록 합니다. 본인이 어떤 표정과 자세, 말투로 발표하는지 꼭 확인했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나중에 제가 평가 내용을 확인할 때 필요할 수 있으니 학기 말까지 지우지 말라고 합니다.

개인 발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맨 앞번호와 맨 뒷번호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방향, 역방향을 정하고, 먼저 발표할 지원자 5명 정도를 받아 평가 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성실하고 욕심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 학생들은 제가 매체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처음 발표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이후에 발표하는 학생들에게 모델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도 무시하고 성의 없이 발표하는 학생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나와서 친구들에게 직접 양해를 구하고("죄송합니다. 제가 발표준비를 못 해서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해도 괜찮을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발표하게 했습니다.

국어 반장은 수업 시작 전에 발표 순서대로 학생 이름, 책 제목을 순서대로 칠판에 써놓도록 하고, 발표 매체는 발표 날 조회 시간 전까지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거나 가급적 usb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PPT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발표할 내용을 줄글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책에 자료조사하고 대본쓰기를 할 때 꼭 매체 계획을 자세하게 적게 해서,

이때 점검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PPT 텍스트를 핵심어 위주로 구조화해서 적는 방법을 예로 보여주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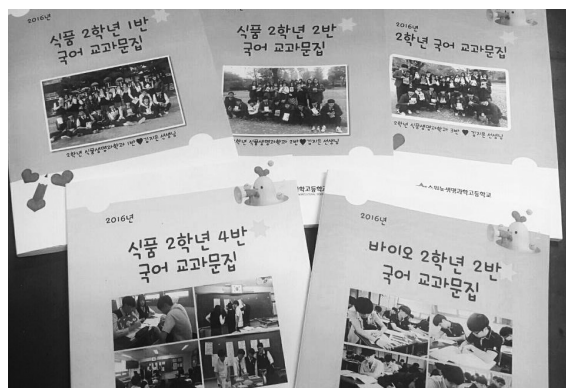
**책 읽고 추억 만들기**

[책 읽는 사진] 학기 초 책 읽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어줍니다. 보통 아이들이 셀피나 노는 사진은 많으나 책에 열중하는 사진은 거의 없거든요. 특히 흑백으로 찍으면 정말 문학소녀/소년 느낌이 납니다. 이번에 홈페이지 물고방 연수 배너도 그렇게 찍은 사진을 활용해 제작하였습니다.

[야외 독서] 날씨가 좋은 날-벚꽃이 활짝 피거나 벚꽃 비가 내리는 날, 5월 초 어느 날, 10월 초 어느 날-야외 독서 수업을 합니다. 30분 정도 교정의 아름다운 곳에서 책을 읽고 10분 정도 책 읽는 모습을 서로 찍어주거나 살아 숨 쉬는 자연을 찾아 사진을 찍고 공유합니다. 사진을 확인하며 책날적이 도장을 함께 찍습니다.

[북카페처럼] 유튜브에서 '잔잔한 카페 음악', '마음이 평온해지는' 같은 키워드로 음악을 틀어줍니다. 작은 블루투스스피커가 있으면 언제나 북카페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휴대폰은 음악을 재생시키고 바로 서랍 속에 넣도록 했습니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평소 산만한 남학생반은 오히려 각자 집중해서 책을 읽는 분위기가 더 잘 만들어졌습니다. 책날적이에 가끔은 고민을 담은 일기를 쓰게도 했습니다. 진로 고민도 좋고 현재의 고민을 적다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가 좋아지니까요.

[교과 문집] 시 경험쓰기와 진로서평, 모방시, 설명문쓰기 등을 묶어서 반별 국어과 문집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6년에는 예산이 많아서(반별 편집, 권당 3000원\*300권=90만원) 독서기록장도 만들고, 문집도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못했네요. 올해는 힘들어도 꼭 만들고 싶어요.



# 책모임 ‘엄마들의 책임기’가 추천하는 책

매주 화요일 10시면 어김없이 모이는 대모초 어머니 독서동아리 <엄마들의 책임기>가 7년을 넘겼다. 동화책과 그림책을 읽으며 학교에서 교육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이해하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 읽는다. 회원들이 돌아가며 발제하여 인문도서, 독서이론서, 육아서 읽기, 문학기행, 저학년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 책읽어주기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오롯이 동아리카페에 차곡차곡 올리고 그 글을 모아서 해마다 동아리작품집을 발간한다. 아이들과 책모임 ‘세상을 바꾸는 독서’도 이끌며 아이와 엄마가 함께 성장한다. 우리 아이는 우리 손으로. 발제자가 선정하고 준비하여 우리들이 함께 토론한 책을 소개한다.



## 제멋대로 버디

김아영 지음 | 라임 | 2019년 6월

갑자기 닳친 불행이나 장애는 극복하거나 부정해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서로 손을 내밀어 연대하자고 이 작품은 말합니다. 농인인 한라가 자신의 욕망에 눈을 뜨며 다시 바다와 마주하는 장면은 감동적입니다. 냉정하고 무서운 세상을 외면하고 싶지만 주변 이웃들을 통해 두려움을 마주보는 용기를 배운 한라는 이제 선불리 희망을 이야기하지도 않겠지만 쉽게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김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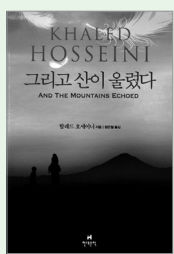


## 나의 눈부신 친구

엘레나 페란테 지음 | 김자우 옮김  
한길사 | 2016년 7월

오래된 친구들 사이에는 진한 우정과 편안함 뿐 아니라 질투와 선망 등의 부정적 감정 또한 존재한다. 이 책에 나오는 릴라와 레누가 그러하

듯이. 1950년대 나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혼돈의 사춘기를 보낸 이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만한 이야기다. 힐러리 클린턴과 미셸 오바마가 극찬한 책이기도 하다. -손예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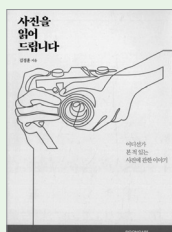


## 그리고 산이 울렸다

할레드 호세이니 지음 | 왕은철 옮김  
현대문학 | 2013년 7월

『연을 쫓는 아이』로 잘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출신 작가의 대표작 세 권 중 하나다. 가난 때문에 운명적인 이별을 맞게 된 남매와 가족의 사랑을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가족으로 인해 느끼는 상처, 그리움, 점차 사랑이 부재한 시대에 살아가는 이유, 가족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는 책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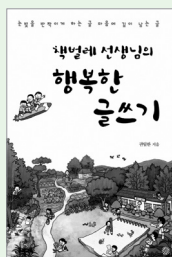
로 출간 전부터 화제를 일으키고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하다. -윤수민



## 사진을 읽어드립니다

김경훈 지음 | 시공아트 | 2019년 03월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셀피를 찍는 시대이다. 그러나 사진의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함부로 찍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인간의 다양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강력한 미디어이다. 2019년 풀리처상을 탄 사진작가의 소개로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깊이 읽고 토론하는 여정이 흥미진진하다. 낮은 존재를 낮설게 보고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독서 본연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윤성아



## 책벌레 선생님의 행복한 글쓰기

권일한 지음 | 우리교육 | 2015년 01월

독서가 세상의 화두가 된 요즘, 읽을 만큼 읽었다. 이제 써 볼까? 하지만 녹록하지 않은 글씨기에 좌절해 본 경험이 있다면, 나의 글쓰기뿐 아니라 아이들의 글쓰기에도 도전해 볼 용기를 주는 친절하고 재미있는 책이다. 20여 년 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함께 진심을 녹여 내고 재미를 더해 주는 행복한 글쓰기에 대한 다양한 방법 소개로 성실한 글쓰기를 권한다. 이 책과 함께 선생님의 독서 토론 글쓰기 책들 6권을 모두 읽고 토론하였다. -박미영



## 1984

조지 오웰 지음 | 정희성 옮김 | 민음사  
2003년 6월

전체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지하는 글을 쓴 조지오웰의 작품으로 동물농장에 이어 정치 사회적 예언서로 읽히고 있다. 사소한 일에는 분개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에는 소리치지 못하는 현대인에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깨어있으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윤지영



## 인생의 베일

윌리엄 서머셋 모 지음 | 황소연 옮김  
민음사 | 2007년 02월

『달과 6펜스』의 여운이 강렬한 서머릿 몸에 끌려 읽기 시작한 소설, 시작부터 엄청난 흡입력이다. 19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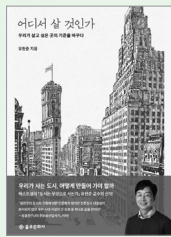
대 영국 식민통치 홍콩 배경, 진정한 사랑이란 뭘까, 운명처럼 찾아온 사랑을 어떻게 하나. 키티의 어깨를 안아주고 싶다. 앞으로 많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선택과 그에 대한 후회가 또 있을까 인생은 베일이니까. 월터는 키티에게 마지막으로 “죽은 건 개였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은 남기고 죽었는데 칼데콧의 그림책 관련, 치열하게 토론, 영화까지 흥미진진이었다. -권윤옥



## 이방인

알베르 까뮈 지음 | 김화영 옮김 | 민음사  
2011년 03월

사회부적응자, 무관심자 피르소는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듣고 살인을 저지른 후, 사회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실상 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일상생활들이 어머니의 장례식과 살인 후 거대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세상의 낯설음에 대한 이야기다. 개인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가 개인을 역으로 괴롭히게 되는 부조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책이다. -김초희



## 어디서 살 것인가

유현준 지음 | 을유문화사 | 2018년 5월

건축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이 돋보인다.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의 원인들이 건축과도 연관이 있으며 ‘어디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 나간다. 단순하게 어떤 지역이나 주거 형태에서 살 것인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건축물이 담고 있는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을 담아낼 수 있을까? 이 책을 읽고 토론하며 그 해답을 나누었다.

-홍현정



## 돌 씹어 먹는 아이

송미경 글 | 안경미 그림 | 문학동네  
2014년 12월

우리는 누구나 크든 작든 자신만의 아픔이나 감추고 싶은 치부를 가지고 살아간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 송미경 작가는 ‘돌 씹어먹는 아이’를 등장시켜, 아이와 가족이 이것을 함께 치유하고 인정해나가는 과정을 위트있게 그려낸다. 아울러 이 소설을 각색한 희곡집과 그림책까지 비교해서 읽는 즐거움도 함께 느껴보길 바란다. -홍지은

# 내가 권하는 책



## 너는 어떤 씨앗이니?

최숙희 글·그림  
책읽는곰 / 2013년 5월

**코**끝을 사랑살랑 스치는 바람에 봄 향기가 가득하다. 시작과 설렘의 계절인 봄, 당신 마음 속 꽃씨를 찾게 하는 책 한 권 소개한다.

책 표지에 한 아이가 두 손을 모아 씨앗 하나를 정성스럽게 들고 있으며, 화관을 쓰고 있다. 화관의 꽃들은 다양하다. 모란, 봉숭아 등 여러 꽃들이 어우러지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러하다.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되, 나만의 꽃을 피워내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느껴진다. 책장을 넘기면, 씨앗이 나오고, 이어서 뒷장에는 그 씨앗이 피우는 꽃이 나온다. 서너 가지의 씨앗과 꽃의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연꽃이야기가 나온다. 씨앗이 씨앗이 느긋이 꿈꾸던 씨앗이/ 긴 잠에서 깨어나 눈부신 연꽃으로 피었네./ 그래, 너도 씨앗이야. 꽃을 품은 씨앗/ 너는 어떤 꽃을 피울래? 라며 질문을 던진다.

보건의료로서 독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 이십대 후반, 교직 4년차 쯤, 실연의 아픔을 지독하게 겪었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 들어가던 어느 날 읽은 한 권의 책을 통해 치유하게 되었다. 책이 정보 제공 뿐 아니라, 심리적 지지가 된다는 것에 진율을 느꼈다. 독서가 역경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 한 후, 독서치료라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독서심리상담가 자격증을 취득했고, 독서의 심리적 효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마음이 아픈 학생을 만났을 때, 책 한 권을 살면서 건네주는 보건 선생님이고 싶다.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마음 건강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대중에게 알리는 학자이고 싶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 건강은 육체적 건강만큼 중요하다. 독서를 권하는 보건 선생님, 정신 건강을 위해 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하는 학자, 그것이 내가 바라는 나의 꽃이다. 내 꿈의 꽃, 그 향기가 세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부디, 당신도 당신의 꽃, 그 씨앗 하나를 발견하기를 기대하며, 너는 어떤 씨앗이니? 라는 질문으로 글을 맺는다. 단언하건데, 당신에게도 분명 꽃씨가 있다.

황희진(서울 잠실고등학교 보건교사, 차의과학대학교 간호대학 겸임교수)



## 달래네 꽃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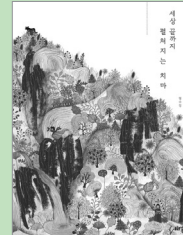
김세실 글 / 윤정주 그림  
책읽는곰 / 2015년 4월

**초**록빛 새싹은 따스한 봄별과 촉촉한 봄비와 사랑살랑 봄바람을 맞으며 피어납니다.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찾아온 따스한 봄날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온 세상에 따듯한 기운이 가득한 봄날의 한가운데, 음력 3월 3일을 삼짇날이라고 부릅니다. 노랑나비가 날아드는 이 좋은 삼짇날에, 옛사람들은 무얼 하며 보냈을까요? 뱀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이 날. 장을 담그면 맛이 좋고, 호박을 심으면 잘 되고, 평소에 미뤄두었던 집수리를 해도 탈이 없는 날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연분홍빛 진달래 가득한 달래네 삼짇날을 따라가 볼까요? “얼른 가요! 이리다 점심때 다 되겠네.”하며 조바심을 내는 달래와 가족들이 봄나들이 준비에 분주합니다. 이 나들이는 달래네 식구 중 여자들만 갑니다. 예전에는 여자들의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달래네 꽃놀이가 가는 채비는 아주 대단합니다. 장구, 무쇠솥, 솔뚜껑, 화로 등을 머리에 이고 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노랑게 만개한 개나리 꽃길을 따라가다 보면, 곱디고운 연분홍빛 진달래도 만나고 새하얀 민들레도 만나게 됩니다.

어느새 식구들은 개울가에 도착하고, 달래와 언니는 화전을 만들기 위해 진달래꽃을 따서 깨끗하게 씻어 준비합니다. 집에서 준비해 온 찹쌀가루 반죽을 동글납작하게 빚어 화전을 만듭니다. 진달래 화전에 진달래 화채, 돌나물무침 까지 봄 향기가 가득 담긴 음식을 먹으며, 흥겨운 꽃놀이를 즐깁니다.

김세실 작가의 정감 어린 글은 봄을 맞은 달래네 식구들의 설레는 마음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윤정주 작가의 그림은 달래를 따라 산과 들로 함께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지요.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생소한 우리 문화일 테지만 ‘화전 만들기’와 ‘꽃으로 하는 놀이’ 등을 이 책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봄이 오고 꽃이 피면 가족과 함께 산으로 들로 나들이를 떠나는 그 마음은 옛사람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즐거운 우리 문화의 매력과 분홍빛 ‘진달래 봄’을 품은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봅니다.

박현주(의정부청룡초등학교 사서)



##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치마

명수정 글·그림  
글로연 / 2019년 1월

**이** 책은 세상에 꿈을 펼치려는 모든 이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씩씩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한계와 장애물을 뛰어넘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지향이 곤충과 동물의 공존하는 모습에 드러나 있지요. “이 치마 세상 끝까지 펼쳐져?” 빨간 치마를 입고 초롱한 눈빛을 빛내는 소녀가 꿀벌, 개구리 등 열두 친구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책은 열립니다.

봄~ 민들레꽃이 지천으로 핀 들판에서 만난 꿀벌은 자신의 치마가 펼쳐져 맑은 향기가 멀리 퍼질 거라고 말합니다. 꿀벌의 색노란 치마는 노란 꽃잎이었다가 봉봉 열심히 날며 모아둔 달콤한 꿀 방울이 되기도 합니다. 여름에 만난 개구리는 연잎 치마가 비를 피하기 좋다고 말하고, 초록으로 펼쳐진 치마는 멀리 캐나다에 사는 빨간 머리 앤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줍니다. 겹겹 갖버섯 치마를 입고 멋진 꿈을 꾸는 개미, 날개를 펼쳐 하늘 높이 나는 지혜로운 부엉이 타고 해리 포터가 사는 영국에도 갈 수 있지요. 말을 번쩍 들어 올리는 말괄량이 삐삐와 해가 지도록 놀다 와도 절대 혼나지 않는 끊임없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덟 번째 장에는 우리 고유의 전설과 민담 속에 등장하는 호랑이가 치마를 화려하게 펼치면, 울긋불긋 치마 속에 바위, 폭포 등 낮익은 정경에 꽃과 나무들이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색채를 뽐냅니다. 여기에 효심 깊은 바리공주와 외직을 물리친 박씨 부인이 칼을 들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친구들을 지켜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친구들이 만나는 무당벌레, 개미, 부엉이, 호랑이, 오리, 물고기는 자연을 품은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안내자와 같지요. 빨간 속표지에 그려진 열두 장의 치마는 일 년 사계절의 숫자적인 은유로 자연의 순리에 따라 변화하는 생태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바람과 물결, 산과 바다, 달과 해님은 우주의 섭리에서 비롯한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창세신화와 그 이야기의 소재가 됩니다. 치마 속에 숨바꼭질하듯 숨겨져 있는 주인공들이 누구일까? 생각하면 재미난 이야기들이 줄줄이 떠올라 비행기도 안 타고 세계 각국을 여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 한 장을 넘기려면 너무나 재미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치마 세상 끝까지 펼쳐져?”하고 묻고 싶을 거예요. 친구들도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치마’ 꼭 읽어보며 큰 꿈을 키워보세요.

김명화(그림책 스토리텔러)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교사

## 하루하루 (한학기 한권읽기 실천사례)

김애연 (수일고등학교 국어교사)

누구에게나 유난히 힘든 날이 있지요. 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지금 하고있는 데도 혼자 애쓰며 중종대다 보면 “아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려고 있다. 좋아하는 것을 해보겠다는 ‘욕망’이 없어 오히려 평온했던 날로 나 다시 돌아갈래”하고 외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지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애면글면 애쓰리라는 것도요. 요즘 제게는 ‘한학기 한 권 읽기’가 그렇습니다.

참 저는 올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해 보니 그동안 선생님들이 뿌린 씨앗이 학교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수행비율이 높아지고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와서 협의하는 데 힘이 되었어요. 이번 학기 저는 아이들이 모둠별로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보고서를 쓰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 대화 연습을 위해 단편소설로 대화하기 연습을 미리 해보고 책과 관련해 문답하는 구술평가도 포함돼 있어요. 16차시에 걸친 긴 호흡의 수업입니다.

이를 위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집과 평가 계획을 3월에 급히 만들기도 했어요. 평가 계획, 책 목록과 활동지, 구술평가 안내, 대화 보고서 예시, 단편소설 등을 넣었어요. 특히 책 목록을 고를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 남녀 분반이라 여학생/남학생 목록을 조금 달리했어요. 그리고 고1 첫 한 권 읽기 경험이 편안하고 재밌길 바라는 마음에서 목록을 정했어요. 아이들이 잘 읽었다고 한 책들 다수에 저와 동료샘이 읽혀 보고 싶은 책들을 두어 권씩 넣었구요.

마음 같아서는 멋진 표지 디자인에 컬러 인쇄, 질 좋은 종으로 활동집을 만들어 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1학년 343명. 12반. 한 권에 43페이지의 활동집을 학교에서 중질지에 등사를 해서 스테이플러로 찍은 후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어졌어요. 후후

그래도 기꺼이 남아서 활동집을 만들어준 아이들과 전우애? 같은 게 생기고 나름 추억이 되었습니다. 만듦엔 힘들었지만 활동집이 있으니 수행평가를 하기가 훨씬 안정적이고 수월해요.

그렇게 바쁜 3월 아이들에게 책 구입을 독려하고 책을 읽히고 진도를 나가고 중간고사를 출제하고 체육대회와 학교스포츠클럽 등으로 들뜬 아이들을 달래가며 구술평가와 책 대화하기를 하고 보니 5월도 다 갔더라구요. 요즘은 자주 쉽게 지치고 기운이 없었는데 2월부터 여러모로 애를 써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실은 혼자 하는 수업이 아니라서, 수행평가를 제안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에 이것저것 평가 안내 등을 챙기고 자료를 만들고 나누는 일이 생각보다 무겁고 힘들었어요.

세상에 혼자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협의하며 만들어가는 일인데 그게 힘이 되면 정말 행복하고 좋을 텐데 힘이 드는 경우가 더 많은 거 같아요. 내가 선의를 가지고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이 꼭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건 아니구나. 알아달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말하지 않으면 영영 모르기도 하는구나. 혼자서 비판의 땅굴을 파고 있을 때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를 읽었어요.

“여행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은 여행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 생각지도 않던 어떤 것을 얻고, 그로 인해 인생의 행로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겪은 말미의 기억과 파장을 떠올리고,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생각해보면 나에게 여행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다.”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 이 시간의 종착점에 다다랐을 때 나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남게 되겠지. 그것이 무엇일지 일단 오늘은 할 수 있는 만큼 길을 가보자. 이런 생각. 그렇게 하루하루를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중입니다.

가장 먼저 했던 첫걸음은 책 대화 연습을 위해 단편소설을 읽고 대화하기에요. 소설에 몰입하기 위해 매해 오디오북을 아이들과 만드는데 그 과정이 참 즐겁습니다. 목소리 연기를 맡은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휴대폰 녹음기에 떨리는 마음을 누르며 대사를 낭독하는 모습은 참으로 어여웁니다. 완성된 녹음 파일을 소설 원고를 보며 듣는데 중저음의 남학생이 ‘미안해 사랑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반마다 까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난삼아 몇 번 다시 듣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간지러워서 못 견뎌 했구요. 이후 모둠끼리 질문 만들고 해결하고 반 전체에서 공유하고 싶은 질문이나 해결하지 못한 질문을 나누었어요. 이 중 두 가지를 골라 글쓰기를 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모둠별로 읽은 단행본으로 구술평가를 해보았어요. 아이들에게 책과 관련한 질문 열 가지를 미리 주고 준비하게 한 후 이 중 두 개를 무작위로 뽑아 문답하는 평가예요. 마지막엔 친구끼리 서로 문답하는 문제가 하나. 총 세 문제에 묻고 답하는 과정이에요. 설렘도 걱정도 많았어요. 송승훈샘이 쓰신 구술평가 원고와 연수 때 했던 메모도 몇 번을 읽고 고민되는 점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궁리하며 저 역시 떨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더 떨었어요. 답변하다 눈물을 흘리는 학생이 넘 안쓰럽기도 했고 구술평가하는 꿈을 꾸었다는 학생도 있었어요. 물론 허튼소리로 시간을 때우다 머쓱해서 씩 웃는 학생들도 있었지요. 아이들은 언제나 저희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구술평가 문항을 연습하라고 하면 10문제를 열심히 연습할 줄 알았더니 스톱워치로 원하는 번호 누르는 걸 연습하더라구요. 그래도 그건 그것대로 귀여웠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학생들이 열심히 잘 참여했어요. 평소 수업 시간에 목소리를 듣기 힘든 학생들이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점, 쓰기 위주의 평가에서 말하

# 제5회 전국 어린이 독서감상문 대회

■ 대상 | 선정도서를 읽은 전국 어린이 ■ 대회 기간 | 2020년 3월 23일 ~ 7월 17일

### 개인 응모

200자 원고지 3매 이상

전자 우편 : kidsbook@interpark.com

우편 접수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29 2층 고래가숨쉬는도서관 독후감 담당자 앞 인터파크 도서, 고래가숨쉬는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개인 신청서 다운로드 후 첨부 접수

### 단체 응모

10명 이상, 우편 접수만 가능

우편 접수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29 2층 고래가숨쉬는도서관 독후감 담당자 앞 고래가숨쉬는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단체 신청서 다운로드 후 첨부 접수

문의 고래가숨쉬는도서관 독서감상문대회 담당자 031-955-9680

### 응모 기간

2020년 5월 11일 ~ 7월 17일

### 발표 및 공지

2020년 8월 31일

인터파크 도서, 고래가숨쉬는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 시상 내역

개인상 : 42명, 상장 및 인터파크 도서 5만원 상품권

최다 독후감 응모 단체상 : 1개교, 학교 도서관 지원용 도서 100권 및 상패(1개)

우수 독후감 선정 단체상 : 3개교, 학교 도서관 지원용 도서 100권 및 상패(1개)

지도교사상 : 4명, 학교 도서관 지원용 도서 25권 및 상패(1개)



독서감상문 대회 바로가기



주최 한국학교사서협회, 인터파크 도서

후원

행복한아침독서, 고래가숨쉬는도서관,

학교도서관문화운동 네트워크

기 듣기 평가를 더 할 수 있었던 점, 그 과정에서 정말 말하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점, 포기자가 거의 없었던 점, 학생들이 평가 준비를 하며 공부에 많이 되었던 점이 좋았어요.

하지만 저도 처음 하는 평가에 대한 긴장이 컸어요. 나 역시 고민이 많은데 동학년 선생님들께 구술평가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어깨가 무겁더라구요. 한 번 말하고 지나가는 내용에 대해 나의 직관적인 평가가 신뢰할 만할까 녹음을 안 해도 될까, 처음 들어가는 반의 체점은 비교 대상이 없는데 잘 할 수 있을까, 하물며 세 명의 교사의 평가의 편차는 없을까, 아이들이 친구에게 수준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좋지 않은 질문을 하거나 질문을 만들어 오지 않는 경우 대답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불안했어요.

이미 구술평가를 했거나 곧 할 거라는 샘들께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어요. 같은 평가를 실천하고 고민하고 있는 샘들이 가까이 계시다는 게 든든하고 힘이 되었답니다. 일단 동료 샘을 위한 안내지를 만들면서 평가를 구체화하다 보니 스스로의 불안도 누그러지더라고요. 직접 해보니 잘하고 못하고가 비교적 잘 드러나고 친구들도 그래서 금방 자기 실력을 수궁하게 되었어요. 친구 문제도 제법 잘 제시했고 만일을 대비해 교사가 10문제 외의 2문제를 준비해 활용했어요.

어떤 책을 읽었느냐가 답변에 차이를 가져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 같은 책이 '아몬드' 같은 책보다 훨씬 답변거리가 풍부했어요. 역시 책 목록과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지금은 구술평가를 마치고 드디어 책 대화하기를 하고 있어요. 왁자지껄 웃음이 가득한 모둠에 가보니 '키싱 마이 라이프'를 읽고 '이성간의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한가'로 열띤 이야기 중입니다. 그 옆 모둠은 화가 나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26년간의 수요일'을 읽고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와 한국 정부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중이었어요. 숙연한 분위기에 조심스레 다가가 보면 가정 폭력을 다룬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를 읽은 모둠에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기도 합니다.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혜화역 시위 이야기를 열띤 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을 읽고 자신이 키웠던 반려 동물을 떠올리며 가슴 아파하고 '누나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던'을 읽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의 근거가 타당한지 찾아보는 아이들.

대화를 통해 생각을 넓히고 자신과 사회를 돌아보고 있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생각의 지평을 넓혔던 경험이 아이들에게 책읽기에 대한 관심과 재미를 더해줄 수 있겠지요. 아이들이 만들 대화 보고서의 내용이 더욱 기대되고 궁금해집니다.

이제 활기찬 책 읽기 수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진도를 나가고 지필평가를 출제하고 시험

을 봐야 해요. 아 쉴 틈이 없네요. 지필을 한 번만 보면 교사도 아이들도 더 행복했을 것만 같아 아쉬워요. 아직은 국어 시험을 한 학기에 한 번 본다는 데 불안이 높은 거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우리는 늘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 사이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의 거리감이 커지면 괴로울 것 같아서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는 게 두려울 때도 있었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해에 해 볼 수 있을 만한 것 '하나만' 하다 보면 몇 년 뒤에는 그 '하나'들이 쌓여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책대화하기는 그렇게 쌓여진 것들로 가능했던 수업이었고 올해 더해진 '하나'는 구술평가였어요. 다음에는 좀 더 수월하게 행복하게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더해갈 수 있겠지요. 그러니 일단 오늘은 할 수 있는 만큼 길을 가보자. 이런 생각. 그렇게 하루하루를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중입니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교사

### 엔틱인가, 빈티지인가

김봉화  
변산 구름산 아래 오두막 무항거에 살며 대안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실과 바늘로 자연을 그리고 있다.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이 되었다고 여기저기서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을 때였다. 어느 여성 모임에 초대를 받았다. 나와서 뭘 얘기를 해달라 했다. 기분 괜찮은 일이었지만, 곧 고민에 빠졌다. 참가자 대부분이 이민자로서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각자의 전문분야에서도 내로라하는 여성들 앞에서 내가 할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나는 작품구성이 잘 안 되고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빈티지 가게들이 모여있는 빌리지로 놀러 가는데, 가끔 가는 엔틱 가게 주인과 나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갈 때마다 자기 상점에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이 진품이라고 자랑이 끝이 없었다. 어느 날 내가 그 자랑하는 말을 중간에서 끊고,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 하나를 던졌다.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엔틱 또는 빈티지라고 구분하는가?"

"어떤 물건이 장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50년이 넘으면 엔틱이라 하는데 단, 세월의 때는 묻었겠지만 잘 관리되어서 처음 탄생했을 때의 모양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어딘가 굵히고 깨지고 떨어져 나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빈티지라고 하고 그 가치는 뚝 떨어진다."

그래? 우리는 최소 100년은 넘어야 골동품이라 하는데……. 나라의 역사가 짧은 콤플렉스에서 나온 50년이겠지만 의외였다. 유럽 이민자들이 가지고 건너온 물건중에는 정말 멋진 것들이 많다.

상인들이 수입해서 들여오기도 하지만, 얼마 전까지도 어느 가정에서 잘 닦아지며 정갈하게 사용하던 가구들과 생활용품들이 지나간 시간이 믿기지 않게 완벽한 모습이다. 이런 것은 엔틱이라 불러 마땅하다.

그 옆집 빈티지 가게에 들어간다. 반짝거리지는 않지만 어딘가 모를 힐링함이 여유있고 정겹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처가 깊은 것도 있고, 패이고 깨진 곳을 다른 것으로 붙이거나 아예 떨어져 나가 일부가 없는 것도 눈에 띈다.

이런 것들을 내 작업에 쓸볼 요량으로 빈티지 가게에만 가면 눈을 크게 뜨고 살핀다. 또, 그 옆 예술가들의 공방은 어떤가. 본 기능을 상실하고 깨져나가 쓸모없게 된 고물들을 예술가의 아이디어로 닦아내고 갈아내고 붙여서 새 작품이 완성되어 있었다.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엔틱과 빈티지를 내 몸에 대입시켜 보았다. 그때가 50년을 조금 넘게 살아온 순간이었다.

나는 엔틱인가, 빈티지인가?

단순 비교가 가당치 않겠지만 나름 깊이 생각해본 순간이었다. 나 스스로는 엔틱이지 싶었다. 겉으로 특별히 표나게 망가진 곳이 없으니, 사고만 당하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세상에 내보내 주신 모습 그대로다. 세월의 때는 당연히 덕지덕지 붙어 있지만, 속 기능은 어떤가? 모르긴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20~30년 후에도 엔틱인 양 보일 수 있을까?

"어찌 생각하세요, 그때에도 엔틱처럼 보일까요?"

꽤 많은 이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모임이 끝나자 여러 참석자들이 인사를 건넸다.

- 50이 넘었지만 엔틱인지 빈티지인지 따져보고 지금이라도 노력해야겠다.

- 아직 50이 안 되었으니 다행이다 이제라도 많은 생각을 할 기회로 삼겠다.

- 교통사고로 다리를 많이 다쳤으니 엔틱이기는 포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슬프다.

-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을 자주 체크하고 식단도 바꿔 봐야겠다 등등

많은 얘기가 오갔다.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머리와 가슴의 얘기였었는데 끝내 말할 수 없었다.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세대를 살아가며 내가 누구에게 이리저리 살아야 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물건을 볼 때에는 필요에 따라 겉모습과 기능을 보고 판단하지만, 진작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는 내면의 가치가 판단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각자가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되었다.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 다들 그때의 결심대로 자신을 잘 관리해서 엔틱으로 평가 받을 수 있게 살고 있고 있겠지…….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의 나는 거의 고쳐질 가망이 없는 고물. 그러나 아직도 매일 명상하며 머리와 가슴은 엔틱이기를 희망한다.

## 학도넷 소식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 학도넷 행사

- 2019년 12월 15일 학도넷 소식지 겨울호 발행(총권 50호)
- 2019년 12월 17일 2019 학도넷 후원의 밤
- 2020년 1월 15일~17일 학도넷 겨울방학 사서연수 “그림책의 탄생과 성장”

### 신입회원 (2019년 12월~2020년 2월)

**정회원** : 김명선 권은수 김유진 황희진 신지연 정윤희 김미령 천진아 박정민 이신애

**웹회원** : 조현정 기영숙 한영규 양창우 한민아 정지향 김태윤 이영화 강정화 권정화 개업나무

### 회비 및 후원내역 (2019년 12월~2020년 2월)

#### 정회원 회비

- 매월 3천원 : 고은 김미령 김미영 김미향 김원형 김지순 남경화 박규리 박영혜 박인자 박정미 박정민 박종숙 박현주 신수인 신재희 오계화 윤정숙 염효경 이영인 이유나 이은옥 이인문 이재경 조성우 천진아 최선옥 최유미 최창희 함정희 황희진
- 매월 5천원 : 강복숙 강정미 곽정은 구미숙 권도경 길미숙 길영희 김경숙(보령) 김경진 김경하 김누리 김대경 김동현 김리라 김명선 김명화 김미령 김선영 김소원 김수연 김수현 김심환 김연옥 김영신 김유진 김윤주 김은승 김은영 김은하 김정숙 김정혜 김하나 남규조 마민희 문수지 문원림 박미영 박선미 박은하 박준섭 박현숙 박효정 변향희 백경숙 백연주 서미혜 서윤주 서정원 선보배 성주영 성미경 송경영 송명원 송숙영 송윤서 송혜영 신영숙 신은미 신정임 신정화 신지연 안경애 안정원 안희정 양은주 유 미 유영숙 유정원 윤남미 윤소영 이금화 이규선 이남지 이매수 이선화 이수경 이신애 이영선 이유정 이은혜 이주영 이 현 이현애 이혜진 임경순 임재연 임지은 장부자 정명하 정미순 정수연 정영희 정윤희 정은희 정해선 정혜련 조영순 주상태 진은진 차진미 채재현 최민영 최은규 하은경 한은미 허현주 홍선희 홍용란 황동욱 황순영 허지은 허지연

- 매월 1만원 : 강애라 강지영 권은수 권향미 김경숙 김은영 김순홍 김승주 김신희 김옥위 김정윤 김중성 김진희 김진희(관악) 김태현 라순희 류주형 문예원글로피아 박 샘 박영옥 박정해 변영이 백화현 불어라봄바람 신희란 안미정 오현애 오희애 유은실 이경자 이규향 이기영 이덕주 이문숙 이미경 이민수 이소연 이영주 이재선 이찬미 정수현 정영희 정지영 정진수 조길랑 조선희 조은영 조의래 최진영 한명숙 허경림 황봉희

- 매월 1만5천원 : 김효숙
- 매월 2만원 : 김순정 박은숙
- 매월 3만원 : 도서출판 북극곰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매월 5만원 : 이루리
- 연회비 : 신희란(12만)
-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원) 비룡소(매월 10만원)

#### 준회원 회비

- 매월 : 김민형(2천) 김송요(2천) 김승현(2천) 손은상(2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송권형(1천) 이제희(2천)

### 후원연대사업

학도넷은 2015년부터 중국 동북3성 조선족학교도서관 36곳에 어린이잡지 (월간)개똥이네 놀이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선생님들과 단체들이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2019년에도 귀한 마음 내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강애라 오상시조선족중학교
- 권진숙 냉안시조선족중학교
- 기정아 길림성장춘시조선족중학교
- 김기정, 김진섭 중국길림성매하구시조선족실험소학교
- 김은영 흑룡강성상주시조선족중학교
- 김정숙 료녕성단둥시조선족중학교
- 김호선 아성구조선족소학교
- 박영옥 료녕성심양시황고구화신조선족소학교
- 박은민 조양천소학교, 김정애선생님

- 박은숙 길림성반석시조선족실험소학교
- 박정해 료녕성신양시우흥구조선족오가황중심소학교
- 박효정 료녕성심양시서탑조선족소학교
- 변영이 료녕성무순시신화조선족소학교
- 보리노조 길림성서란시조선족실험소학교
- 보리노조 흑룡강성 상주시조선족소학교
- 보리노조 흑룡강성할빈시동력조선족소학교
- 손종도 길림성연길시공원소학교
- 신향경 조양천유치원
- 안덕희 길림성매하구시조선족중학교
- 오현애 조선족중학교강변철
- 오희애 길림성반석시조선족소학교
- 이남지 길림성장백현조선족실험소학교
- 이숙현(이비채) 통화시 조선족학교
- 이영주 길림성장춘시조선족소학교
- 이옥한 조선족중심소학교
- 이옥한 중국내몽고흥안맹우란호트조선중학교
- 이주영 용정실험소학교, 최합순샘
- 이지현 만용조선족실험소학교
- 이해연 길림성장춘시제2조선족중학교
- 이현숙 중국연길시6.1유치원
- 임경희 연길시간공조선족소학교,
- 조원희 길림성영길현조선족실험소학교
- 최경희 흑룡강성오상시조선족실험소학교
- 최지영 길림성류하현조선족학교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길림성집안시조선족학교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길림성훈춘시제1실험소학교

###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스웨터로 떠날래(바람의 아이들)/무덤가의 비밀(바람의 아이들)/딩동(북극곰)/엄마의 빈자리(별숲)/제주어 마음사전(걷는사람)/초등 사회성 수업(메이드북스)/죽구 양말을 신은 의자(가람어린이)/투명 소녀의 여행(숲의 전설)/위대한 아파투라리아(글로연)/쿠킹 메이킹(바람의 아이들)/홍과 콩(바람의 아이들)/공룡은 굶지 않아(북극곰)/투명인간 에미(비룡소)/아홉살의 독서수업(여크로스)/어쨌거나 스무살은 되고 싶지 않아(비룡소)/어제, 생일(틴틴북스)/담을 넘은 아이(비룡소)/나는 바람이다 10.11(비룡소)/독립운동가 말꽃모음(단비)/완벽한 부모찾기(비룡소)아내에게 미안하다(단비)/나는, K다(비룡소)/나의 탄생(비룡소)/왕자와 드레스메이커(비룡소)/스무고개 탐정1(비룡소)/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철수와 영희)/내가 꿩이는 생일 미역국(철수와 영희)/클라이브 폰팅의 녹색세계사(민음사)/독서의 즐거움(민음사)/언제나 네 곁에(북극곰)/우리가 지켜야 할 동물들(북극곰)/정주진의 평화특강(철수와 영희)/미래는 어떻게 올까?(산하)/알바생 엄마와 시인 아빠(바오)/다 고쳐 박사의 비밀(북극곰)/다와 의 편지(리틀싸인톡)/선생님 과학이 뭐예요?(철수와 영희)/털뭉치큰 매머드의 스타일기(북극곰)/기이한 DMZ 생태공원(소동)/최고의 이름(북극곰)/꿈을 담은 교문(철수와 영희)/새내기 주권자를 위한 투표의 지혜(철수와 영희)/별숲세계시민학교시리즈 1.평화 평화로운 세계 2.환경 소중한 지구 환경 지키기 3.다문화 다양한 문화이해하기 4.인권 다 함께 인권을 누리는 세상 5.규칙 모드를 위한 규칙만 들기 6.평등 모두가 평등한 세상(별숲)/뽀뽀한 우정(서유재)/엄지척(북극곰)/혼자 먹는 메론빵(북극곰)

###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 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 계간 고래가숨쉬는도서관/ 계간 우리교육/ 월간 개똥이네 놀이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간 학교도서관저널/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동화읽는어른/ 마을이 된 도서관 이야기(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책읽는 학교를 위한 '한학기 한권읽기 독서지도안' (사계절) 200부/ 어린이도서관연구회 목록(200부)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 2019 학도넷 후원의 밤 했습니다.

**연제** :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9시  
**어디서** : 서울 NPO지원센터 1층 '뚝다'

학도넷 15번째 후원의 밤에서는 방정환 선생님을 기억하는 공연들과 소식지공모 선정학교들의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후원의 밤, 귀한 걸음 해주신 선생님들과 멀리서 응원 보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2020년 학도넷 활동에 귀하게 쓰겠습니다.

- 50만 : **창비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학도협)**
- 30만 : **북극곰 김혜원**
- 21만 : **비룡소**
- 20만 : **문학동네, 보리출판사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서울모임**
- 15만 : **학교도서관저널 변영이 이덕주**
- 10만 : **고래가숨쉬는도서관 그레이트북스 사계절 양철북 우리교육 풀빛출판사 홍성우 김경숙 김봉화 김은영 김중성 김진희 김효숙 류주형 박영옥 백화현 서울사서교사협의회 어린이문화연대 오현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임향녀 전교조사서교사위원회 청소년출판협의회 사서교사노조 최경희 한국도서관연구원**
- 6만 : **김혜진 박임선 천개의 바람**
- 5만 : **강애라 김동현 신향경 오승현 글로연**
- 3만 : **곽정은 권은수(봄별) 김경숙(보령) 김경진 송림사서 김명화 김정숙 김정운 나순희 문원림 박소희 박은숙 박정해 박현주(청룡초) 사서교사 강은준 사서교사 김진영 사서교사 신민옥 사서교사 신민주 사서교사 정수현 사서교사 최기욱(진명) 송정옥 염희경 어린이문화연대(이선실 송인현 정병규 김숙) 이경자 이남지 이우람사서교사 이지현 경북사서교사 인디자인 정국화 사서교사 정영자 정영화 정은희 정해선 주소영 사서교사 초등사서교사 신유경 최은희 어도연 함정희 무명씨**
- 1만 : **사서교사 김보람 김재민 서경은**

### 학도넷 겨울사서연수 했습니다.

- 〈그림책의 탄생과 성장-작가, 편집자, 독자, 세계〉
- 강사 : 오승현(글로연 실장)-그림책편집자
- 때 : 2020년 1월 15일(수)~17일(금) / 10시~17시
- 곳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전국의 열정적인 선생님 60여 명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기운을 모았습니다. 멋진 사람책으로 거듭나셔서 그 향기로 우리 아이들을 드뭇게 해주실 겁니다.

### 〈겨울사서연수를 풍성하게 해주신 후원고맙습니다.〉

- 교육공동체 벗-오늘의 교육 70권
- 그레이트북스-바나나 곱질만 쓰면 괜찮아 3권
- 백화만발-할머니의 정원 2권, 엄마와 도자기 2권, 선물 24권
- 보리-개똥이네 놀이터 과월호 140권
- 사계절-한학기 한권 읽기 독서지도안 80권
- 양철북-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3권, 2020 달력 30개
- 천개의바람-뭔가 특별한 아저씨 미니북 70권, 2020 달력 70개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